

2022년 07월

경남마을교육공동체

우리들의 행복한 마을이야기

제24호

사진<하동행복교육지구 '나하고 여럿이 행복 만들기' 가족캠프>

[발행]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마을교육공동체 담당

[편집] 성정은 / 문의 : 055.268.1523

1. 행복교육지구 소식 모아모아 2. 창원행복교육지구, 제1회 청소년 아이디어톤 개최 3. 이달의 사람책 - 꿈마을학교 송성경 대표

TOP NEWS

마을교사 회복적 실천 역량 강화 연수 개최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6월 22일(수)부터 3주에 걸쳐 매주 수·목요일 경남행복마을학교와 창원교육지원청 마산청사 두 곳에서 마을교사 37명을 대상으로 회복적 정의를 삶과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회복적 실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였다.

매년 도교육청 학교혁신과 행복교육지구담당에서는 마을교사를 대상으로 회복적 학교와 공동체 세우기 기초·심화 과정을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회복적 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원을 해왔다.

특히, 올해는 행복교육지구가 모든 교육지원청에 전면 도입되면서 마을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회복적 정의를 삶과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마을교사의 요구가 있었다. 총 45차시 집중 과정으로 구성된 이번 연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와 마을을 만들기 위해 회복적 정의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우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였다. 연수에 참가한 문선현 마을교사는 "이번 연수로 갈등 상황에서 처벌이 아닌 존중과 자발적 책임을 이끌어내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통영행복교육지구, 마을교사 작품 전시회 개최



전시회에 참여한 마을교사들

통영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숙)은 7월 8일부터 8월 19일까지 '통영행복교육지구 청렴한 통영 만들기'를 주제로 마을교사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통영교육지원청 2층 북카페 및 3층 휴게공간을 활용하여 교육가족과 시민들이 함께 느끼고 배우는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마을교사의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나전칠기 공예 백혜선, 도자기 공예 배무영, 보자기 공예 차상희, 업사이클링 공예 이수미 등 각 분야에서 수년간 전문성을 키워 온 우수한 역량을 갖춘 총 네 사람의 마을교사가 참여하였으며 본 전시회를 위해 지난 몇 개월간 아낌없는 노력을 하였다.

작품 전시회에 참여한 마을교사들은 "버려지는 양말목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공예가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러 소감을 밝혔다.

김경숙 교육장은 "통영행복교육지구 마을교사는 각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이 매우 우수하며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러한 전문성과 역량이 한껏 발휘되고, 이러한 역량이 다시 학교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다"고 전했다.

창녕행복교육지구 상반기 공감토론회 개최



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근)은 6일 창녕 관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민 60여 명 대상으로 '따오기창녕행복교육지구 상반기 공감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감토론회는 '마을을 품은 아이, 창녕의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다양한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마을교육공동체 협력 강화를 위한 여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홍보 동영상 시청, 배움터 및 마을교육과정 우수사례 발표, 원탁토론, 교육장과의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여러 우수사례를 통해 마을과 학교가 학교 담장을 넘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으며, 퍼실레이터 주도로 진행된 원탁토론에서는 행복교육지구의 성과 및 향후 운영 방향을 여러 관점에서 논의했다. 이후 교육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안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고충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근 교육장은 "창녕행복교육지구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활성화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주교육지원청, 모모놀 마을학교 친구초대 놀이터 열어



다른 가족을 초대해 물 옮기기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

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주)은 2022년 진주행복교육지구 지역 중심 마을학교 19개를 선정하여 운영하며 그 중의 하나인 모두모여놀자 마을학교(아래 '모모놀')는 지난 달 18일 대곡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4가족의 가족놀이단으로 친구 초대하기 놀이터를 운영하였다. 친구초대 놀이터는 다른 가족을 초대해 모래놀이, 물총놀이, 물 옮기기,

물터널 통과하기, 대형 수영장에서 친구들과 놀기 등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주말이라 아빠들의 참여가 많아 놀이터가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모모놀 마을학교는 진주놀자학교놀이재비협동조합에서 운영하며 마을 100%즐거기라는 목표로 마을 공간에서 놀이와 미술, 요리와 생태 등을 접목하여 새로운 놀이의 확장으로 이어지도록 활동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절기놀이와 공원놀이를 접목한 파크로 놀이터, 시대적 고민을 담아 꾸러미와 동영상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여는 메타버스파일럿 놀이터를 운영하는 중이다.

고성행복교육지구, 2분기 대중강연 열다



회복적 생활교육 대중강연에 참석한 고성마을교사

고성행복교육지원센터는 지난 달 16일(목) 고성청소년센터 "온" 모이자 홀에서 '존중과 돌봄, 경청으로 연결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주제로 회복적 생활교육 대중강연을 개최하였다.

이번 대중강연은 고성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열렸으며, 자녀 교육과 학생 교육에 관심있는 학부모, 교사, 지역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령행복교육지구 이맹기 강사가 '교실과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몸과 마음으로 익히는 회복적 생활교육' 내용으로 강연을 하였다.

대중강연은 일방적인 전달식 연수가 아닌 참여·활동형으로 이루어졌으며, 체험을 통해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해 이해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가정과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강연을 통해 모든 개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회복해 가는 과정과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에 참여한 학부모는 "단절과 응보적인 태도를 벗어나, 공동체성 회복과 관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학생의 존중감 형성과 건강한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우리 자녀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겠고, 관심있는 학부모들과 회복적 생활교육의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청소년의아이디어로 채워지는 마을교육



담당 장학사의 아이디어톤 취지 및 주제 설명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락)은 7월 8일에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창원 관내 초·중·고의 15교 48명이 참여한 2022. 창원행복교육지구 청소년 아이디어톤(부제: 마을에서 놀자)행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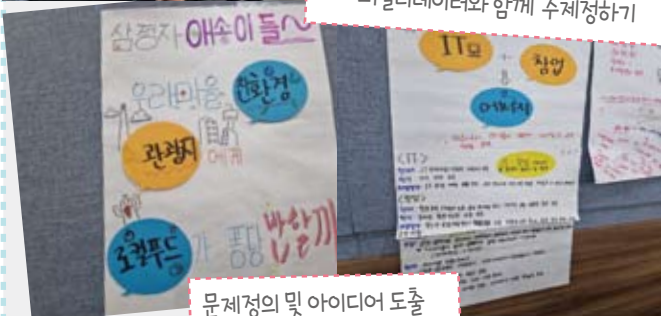
아이디어톤(Ideathon)이란? 아이디어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정해진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발산하여 아이디어 기획물을 내는 활동을 말한다.

올해 시작한 창원행복교육지구는 학생들이 마을교육을 받는 수동적인 대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마을을 통한, 마을을 위한 배움의 주체가 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기획하였다. 부제를 ‘마을에서 놀자’로 하여 3~4명 단위의 팀별로 생태·환경, IT(AI, 코딩 등), 문화·예술 등 학생들이 마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 중 선택한 주제를 팀원들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학생들의 발산적 아이디어 생성 및 정리하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소속 학습연구년제 교사와 마을학교 교사들이 테이블 퍼실리테이터로 함께 참여하였다.

시작은 언제나 설레요~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주제정하기



문제정의 및 아이디어 도출

순위를 가리기 위한 대회가 아닌 만큼 팀별로 구현한 아이디어는 결과 공유 단계에서 참여 학생들이 함께 ‘마을’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향후 학생들의 아이디어는 보다 구체화되고 발전되어 창원행복교육지구 청소년 사업 운영에 반영될 계획이다.



프로토타입 만들기 및 발표 준비

이상락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창원행복교육 지구 운영에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확고해 졌으므로 앞으로는 청소년들의 참여가 제안과 결정, 실행의 전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행사에 참여한 창원중앙중 한 학생은 “그동안 마을은 그냥 내가 사는 곳인 줄 알았는데, 친구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모으고 연결하다 보니 ‘마을의 모든 것’을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팀별 최종 발표하기



아이디어톤에 참가한 48명의 학생들과 교사

이달의 사람책을 소개합니다

매일이 파티같았으면 하는 너희들을 응원해



지은이 : 송성경

꿈마을학교 대표
파티플래너 마을교사
마을해설사

내가 파티플래너가 된 시작은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부터였다. 2019년도 첫째가 입학하면서 무언가 긍정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던 중 아이가 다니는 창원 상북초등학교 마을학교에 재능기부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하지만 막상 마을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니 10년 동안 아이 키우느라 가정주부로만 지내온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마을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러던 중 자매 둘을 키우면서 꾸며 주는 것을 잘하고, 아이들의 이쁜 모습을 놓치지 않고 사진으로 남겨주고, 포토존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풍선으로 꾸미고, 이벤트를 해주는 것을 좋아하고 즐겨한다는 말에 주위에서 모두들 '파티수업, 파티플래너'라는 수업을 해보라며 권유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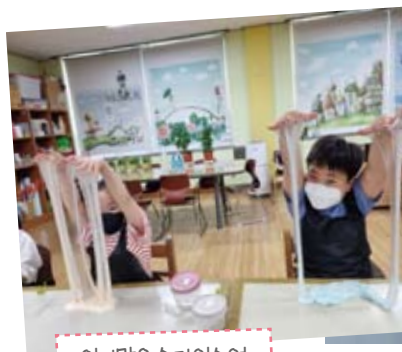
22년도 6기 파티플래너 수업

이렇게 시작한 마을교사는 어느덧 4년차가 되고 마을학교 대표도 2년 동안 맡게 되었다. 대표가 되고나서 무게감도 생기고 또 무언가 마을학교에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다보니 첫째가 3학년이 되었을 무렵 '교과서에서 배우는 사회의 마을 역사를 아이들과 함께 배워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마을해설사 모집에 지원했다. 어느덧 대표라는 자리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에 지쳐가 심이 필요한 시기에 마을 또 다른 곳에서 각자가 맡은 일을 재밌게 풀어나가며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기에 또 다른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거기다 마을해설사를 하는 시간 동안 마을의 역사와 자연을 배워 아이들과 집앞을 나가기만 해도 우리는 대화할 거리, 놀 거리가 풍부해졌다.

이 시간들은 마을학교의 아이들에게도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공동체 안에 곳곳에서 어른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경험은 정말 혼자먹기 아까운 종합영양제 같은 것이었다.



안기많은 슬라임수업



마을해설사를 하며

그동안 꿈마을학교는 코로나로 힘든 속에서도 꾸준히 작게나마 꾸려나가 작년 2학기엔 슬라임 선생님도 새로이 오시게 되었고 연말엔 '꿈마을 사진전'을 열어 못다한 축제를 남기게 되었다.

꿈마을학교는 마을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놀이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며 꿈마을학교 마을교사들은 아이들이 꿈을 찾고 끼를 틔우는데 편안하고 정감가는 역할로 다가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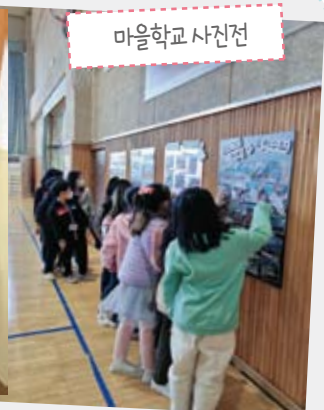
마을교사들 간에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넣어주며, 학교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학부모님들의 열정적인 마음이 더해져 한 해가 갈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알이 짙 여문 마을학교가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앞으로 나의 바람은 꿈마을학교 친구들에게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른이 아니라 작은 관심이라도 그들에게 안정을 줄 수 있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마을교사가 되고자 한다. 마을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는 일들이 나의 정서에도 큰 영향을 주어 내가 어린시절 상처받았던 마음까지도 치유가 되고 있음을 느낀다.

내가 아이들에게서 받은 즐거움을 다시 기쁘게 되돌려주는 일,
"나는 꿈마을학교 파티플래너 마을교사입니다"



교감선생님의 기타수업



마을학교 사진전